

# 살롱드경산

Salon de Gyeongsan



놀이

죽제

머리카락

경산의 명물 도산이

## PROLOGUE

###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청년’에 대하여

“... 도시는 그 속에서 사는 시민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는 시민이 어떠한 사회를 전제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점과 시민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 장기웅, 〈사람, 도시, 건축〉에서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를 품어 안고 있다. ‘이곳에 남아있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이다. 이 두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자신의 오래된 추억이 깃든 곳을 떠나기도 하고, 추억과 함께 살아가기도 한다. 지역을 떠난 이들도 그들대로의 고단함과 타지에서 살아가는 외로움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품은 채 살아가지만, 남아있는 이들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응어리를 품은 채 살아간다.

이 응어리는 오랫동안 꿈꿔온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내면의 욕망 안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타지로 올라간 이들이 미지의 곳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지역에 사는 우리들을 피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무탈하게 잘 지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남아있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새롭고 더 많은 것들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새로운 곳에서 많은 기회를 잡고, 다양한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에 대한 의문은 사라지지 않은 채 아직도 한쪽 모서리에 자리 잡고 있다.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 타지는 젊음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기대를 가진 미지의 곳이다. 이 때문에 미지의 장소는 청년에게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와 설렘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은 두렵기도,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 이로써 많은 이들은 타지로 떠나게 하고, 지역에 남아 있게 된다.

어느 곳에 가든 청년이 자리 잡기에 고단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어느 것 하나 쉽고 어렵다고 쉬이 말할 순 없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제한되고 한정된 것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생경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 대신, 지역에서 살아가게 된 청년들은 주어진 한계를

깨부수기 위해 이곳에서 기회를 만들어 간다. 지역의 청년들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대하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치를 지역에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전과 달리 이곳이 조금은 새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잡지 속에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내리기 시작했다. 과거에 이곳에서 살아가던 청년들은 어떤 기회를 만들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바뀌어 왔는지에 대해서 쓰고자 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많은 이들이 의식하고는 있지만, 다시 꺼내보진 않는다. 아무도 꺼내지 않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새롭게 운을 뚫다.

잡지는 청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불꽃이자 해방구였던 것들, 그리고 금기에 저항하는 현실 속에 섞인 유희와 오락에 대해서 말한다. ‘놀이’, ‘축제’, 그리고 ‘머리카락’이라는 소재 하나에 도 당시의 청년들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걸 보았다.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지역에 살던 과거의 청년들을 조명하고, 아울러 그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서 어떤 걸 남겨놓았는지 혹은 사라졌는지에 대해 기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읽히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것들이 점차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 이들의 이야기를 펴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 어떤 것이 기록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두에게 물음을 전한다.

금기시 되는 것들에서 피어

나는 청년들의 열정과 이야기

## CONTENTS

02	PROLOGUE
08 INTERVIEW	<b>누구든 가슴속에 불꽃 하나 품고 살잖아요</b> - 젊음의 발열 - 흔들리는 불 - 꺼지지 않는 청춘, 경산의 열정
30 COLUMN	<b>대학축제의 카니발적 세계관과 상실된 주체</b> - 금기, 어울림, 자유; 축제의 본성 - 라떼의 축제와 2000년대 축제의 쓴맛 - 주체에서 객체로, 상실된 몸 -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하는가
52 COLUMN	<b>헤어스타일 그게 뭐라고</b> - 헤어스타일과 금기 - 경산 이발사가 들려주는 경산 이발 이야기
70 ANALYSIS	<b>시대별 헤어스타일 분석</b> - 한눈에 보기 - 시대별 여성헤어스타일 분석
84 ESSAY	<b>미용실과 우리들</b>
90	EPILOGUE

누구든 가슴속에  
불꽃 하나 품고 살잖아요

긴장한 탓에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았죠 바보같이  
한잔 했어요 속상한 마음 조금 달래려고 나 이빠요 히  
기분이 좋아요 앓싸 알뜰말한 게  
완전 좋아요 몰라요

-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중에서

황준석 에디터

첫 번째 이야기

# 젊음의 발열

황준석

제29회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은 그룹 익스의 방지연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를 ‘대학가요제 본선 무대에 섰을 때’라고 말했다. 리드보컬 이상미의 취업 실패 이후 구성원들이 함께 작가/작곡한 곡인 ‘잘 부탁드려요’는 2005년 대학가요제에 처음으로 전파를 탔고, 당시 MBC 대학가요제가 끝나자마자 방송으로 송출되었던 음원이 추출되어서 삼시간에 퍼졌을 정도로 이후 대학생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점점 명성을 잃어가던 대학가요제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노래는 어쩌면 당시 작사가가 실제로 면접에 떨어지고 술 한잔하면서 썼더라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면접의 긴장감, 그 후의 아쉬움, 반복되는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 어쩌면 이 노래의 도입부인 ‘안녕하세요’는 현재 우리에게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 같다.

군사정권의 압박 속에서 70년대 대학생들의 울분을 표출하기 위해 시작된 대학가요제는 2012년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제작비 대비 낮은 시청률 문제로 폐지되는 듯하였으나, 많은 시청자와 대학가요제 기수상자들의 서명운동 등으로 2014년부터 다시 재개되었고 이후 시들하다. 2014년 결국 최종 폐지되었으나 7년 만인 2019년 다시 부활하게 된다.

또, 1980년 5·18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배우 류준열이 배역을 맡은 대학생 구재식은 극 중 “공부하러 대학 간 것이 아니고, 그저 대학가요제에 나가고 싶어서 대학에 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디션 프로가 없던 그 시절,

꿈꾸는 청년들에게 대학가요제란 어쩌면 단순히 대학생들의 로맨스를 담아낸 음악 축제가 아니라, 시대의 맥락을 짚어내는 청년들의 불꽃이자 해방구였을지도 모른다.



사진 2013년도 영남대학교 천마대동제 출처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관리팀

젊음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달아올랐던 대학가요제는 그야말로 대학생들만이 가질 수 있는 로망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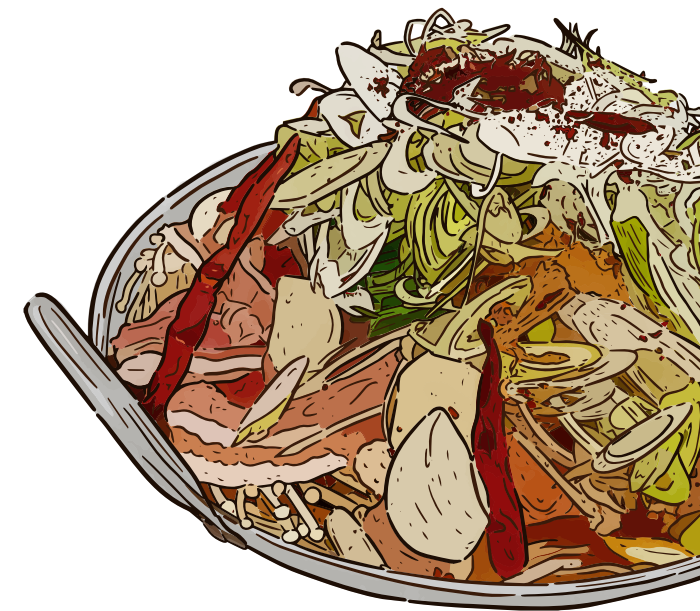
아프니깐 청춘이다, 그때는 철도 씹을 나이다. 등 청년들은 매번 고통에 인내해야 하고, 항상 힘들어야 한다는 식으로 미디어에 비치곤 한다. 나는 이러한 청춘을 ‘마라탕’에 비유하고 싶다. 얼얼할 마와 매운 라가 합쳐진 마라탕의 기원은 중국 쓰촨의 사람들이 덥고 습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 탄생시켰고, 힘든 중노동을 견뎌야 했던 뱃사공들이 탕으로 먹는 형태를 만들어내며 탄생한 음식이다. 그들은 고된 중노동 뒤에, 이를 먹으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들을 다 쏟아낸 뒤 코를 털고 일어나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은 것이다.

매운맛은 뇌에서 통증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뇌에서 엔도르핀과 같은 마약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다.

모두들 부럽다곤 하지만 딱딱하고 힘든 청춘이다. 어디 가서 위로받기도 힘들고 내 생각엔 인생에서 가장 어지러운 순간이 청춘인 것 같다. 하지만 마냥 가만히 세상을 비판하기보다는 내 안의 열정과 끈기를 믿고 한번 '맵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

쓰촨성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뱃사공이 그랬던 것처럼

# 청춘은 마라탕 이다.



#쓰촨성 #뱃사공 #매운맛  
#얼얼한 우리들 #맵게 살자



두 번째 이야기

## 흔들리는 불

영남대학교 34년 역사의 민중가요 동아리, '예사가락' 졸업생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졸업한 지 7년쯤 지난 회사원이자 아이가 있는 아저씨가 된 예사가락에서 보컬을 맡았던 06학번 졸업생입니다. 처음엔 예사 가락을 어떤 동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밴드를 한다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민중가요라고 사람들의 애환? 일상을 노래하는 동아리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경험이 있네요.

사전에 통화하실 때 동아리를 입학식 때 바로 들어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았던 동아리였나요?

고등학생 때 부터 밴드동아리에서 보컬로 활동했었거든요. 예사가락은 입학식 때부터 바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단순히 밴드동아리인 줄 알았었죠.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동아리에 들어가시고, 학교생활을

정말 재밌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과거 대학 생활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 먹다가 막차 되면 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학교 앞에서 쪽 닭도 먹고 그랬었는데, 거기 우리 동아리가 아무래도 음악 동아리니깐 버스 정류장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술 먹고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 그랬어요.

학교 앞에서 술도 마시고 기타도 치고 지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걸요? 또 다른 일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린 음악 하는 동아리다 보니 항상 어디를 가든 통기타를 하나 챙기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엠티를 가더라도 통기타 치다가 한잔하고~ 이야기 좀 하다가 기타 좀 치다가 한잔마시고, 그러다 보면 노래책 한 권을 다 떼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 밤 또 새고 그랬었어요. 남들처럼 가서 족구하고, 고기 먹고 그런 평범한 수련모임이랑은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깐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그런 게 남들 보면 되게 별로일수도 있지만,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추억도 많이 쌓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네요.

아, 그리고 다른 과에서 섭외가 들어와서 신입생 환영회때 공연하러 많이 불러 나가기도 했어요. 이런 거 생각해보니 학교생활하면서 공연을 정말 많이 했네요.

요즘은 보통 학교에서 입학설명회나 그런 행사가 있으면 보통 기수를 섭외하던데, 그때 기수보다는 동아리를 많이 불러와서 동아리 홍보도 하고 학교 소개도 하고 그랬었죠. 동아리 신입생 모집도 할 수 있었구요.



사진 2007년 5.10 영남대 대동제  
출처 영남대학교 대학기록관리팀

그리고 옛날엔 학교와 투쟁할 때도 많았는데, 우리가 민중가요 동아리 다 보니 투쟁에 관한 노래도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옛날엔 시위가 많았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는 노래도 많이 부르기도 했고 선배들 말 듣다 보면 노래 부르다가 쫓기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또, 선배들에게 들었을 땐 생각하는 부분이나 기타 치는 부분이나 그런 게 풍물패랑 비슷하다 보니 풍물패랑 같이 합동으로 공연도 많이 했었다고 들었어요. 다른 점이라면 우린 밴드사운드에 좀 더 가까웠었던 것 같아요.

앰티가서도 기타치고 노래 부르고, 정말 노래에 푹 빠져 사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혹시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실까요?

물론 다 음악 활동이니 공연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저희가 에코프로젝트라고 친환경 프로젝트 공연을 홍보하고 공연한 적이 있어요.  
원래 밖에서 공연하게 되면 전기를 끌어와야 하잖아요, 근데 에코 프로젝트다 보니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자전거로 열심히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저희 구성원들끼리 열심히 자전거 밟고, 또 저희끼리도 안되면 자전거 잘 탈것 같은 사람 불러와서 시키기도 하고 중간에 전기 끊기면 끊기는 대로 공연하다가 또 발전기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또 공연하고 했었는데, 그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과거 공연은 정말 공연보다는 음악 그 자체를 즐기는 공연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인데요, 선배님은 대학가요제의 거의 끝 무렵에 대학을 입학하신 걸로 아는데, 그때 당시의 대학가요제의 열기는 어땠나요?  
옛날엔 대학가요제 1등만 하면 대 스타가 되는 세상이었죠. 아시다시피 신해철, 김경호 등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기억하려면 많이 찾아봐야 하지만, 대한민국에 내로라하는 분들이 대학가요제를 통해 스타가 되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부각을 드러내거나 음악 호라 등을 길게 하는 분들이 잘 없어서 정말 아쉬웠어요.

저도 참가한 적은 없지만, 대학교 가기도 전에 94년도쯤에 정말 대학가요제를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2000년도 들어와서 익스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목받는 가수가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어요. 지금의 '슈퍼스타K'처럼 그때 대학가요제가 정말 신인가수의 등용문처럼 여겨졌었고,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는데 정말 아쉽네요.



사진출처 Unsplash



사진출처 Unsplash



## 흔들리는 불

사람이 흥이 나면 노래가 절로 나오고, 어깨춤이 덩실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과거 90년대 영남대학교의 댄스동아리 맥스엔제니스의 흥도  
만만치 않았었던 것 같다. '춤에 관심있는 사람, 들어와라'라는 직관적이고  
강렬한 대자보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 영남대학교의 댄스동아리, '맥스엔제니스' 졸업생의 인터뷰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7학번  
김종규입니다. 맥스엔제니스 동아리의 초기 구성원이자, 2000  
년도에 회장을 맡았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학생이 과거 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혹시 과거 동아리나 학교에서 어  
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항상 틀 속에 살다  
대학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느껴지는 자유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만남, 일탈을 크게 경험했어요.

신입생과 관련된 일화는 아무래도 술과 연애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미팅하고 소개팅하고 그런  
에피소드도 많고, 남중 남고를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였었고, 사실 저도 과거  
여자 동기에 고백했다가 차인 일화도 있고요, 그러다가  
소문이 퍼져서 과뿐만 아니라 단대 전체가 알게 되어서  
지나가는 선배마다 “개가 너냐?”라며 엄청나게 소문이  
퍼졌던 추억도 있네요.

뭐, 1학년이니깐 웃어넘길 수 있었던 일이었죠.

또 다른 일화로는 제가 재대하던 2000년도에 바로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게 되고,  
엔티를 준비를 하게 됐었어요. 1박2일로 경주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복학 후 첫 동아리 활동이고, 회장이다  
보니 잘 준비 하고 싶어서... 보통 경주 가면 자전거를 많이 타잖  
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동아리 구성원 1학년들  
00학번들, 1,2,3기 회원들이나 97학번 중 휴가 나온 군인들 막  
섞여서 경주를 한 바퀴 돌자! 라는 계획을 잡았었고,  
그 당시 빛꽃 휘날리던 4월이었는데, 그게 후배들에게  
인상이 되게 깊었었나 봐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후로도 한  
15~16기 회장들까지 우리 동아리는 첫 학기 봄 엔티는  
무조건 경주로 가서 자전거를 타자는 식으로 동아리의  
전통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드라마에서 다 같이 모여서 자전거를 타던 모습이  
멋있어서 그 내용이 생각나서 준비했던 건데, 40~50명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한 줄로 쭉~ 달리는 게 참 좋은 기억이죠.



특히 영남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앞 오렌지거리의 풍경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과거 오렌지거리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옛날에 학교 앞에 쪽닭이라는 닭을 팔았었어요. 지금 학교 정문 건너편 건널목에서 버스 옆쪽 오렌지거리 쪽 큰 대로변에 지금 화장품가게가 있는 라인에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 쪽에 테이블 펴놓고 거기서 술이랑 안주를 팔았는데, 거기가 술안주가 엄청나게 저렴하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갔었어요. 거기 주메뉴가 쪽닭이라고 닭은 잘게 썰어서 튀겨주는 치킨이 있었어요. 프라이드 치킨인데, 작은 닭이었어요. 한 접시에 7,000원 정도? 하다 보니 어묵탕까지 시켜서 소주랑 하면 4명이어서 2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죠. 술집도 쪽닭집이 짝 붙어 있었는데, 대로변 왼쪽으로 한 블록 전체가 다 쪽닭집이었어요. 어차피 가격이나 맛도 다 똑같다 보니 이 집 자리 없으면~ 저 집 가고 저 집 없으면 저 집 가고~ 그랬었죠.

한 테이블에 6~7명 앉을 수 있는 긴 테이블이랑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를 펴놓고 다 같이 앉아서 선배들에게 술 많이 얻어먹고, 제 밑으로 후배들에게 거기서 술을 한 번씩 사주기도 하고 돈 없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곳이었죠.

처음 먹을 때는 앵 대체 여기서 왜 먹어 하는 기분이었는데, 한 두 번 먹다 보면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당시 스타크래프트가 엄청나게 나게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땐 학생들이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그런 게임들이 처음 출시되던 해라서 PC방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원룸촌 근처에는 한집 건너 한집이 있을 정도로 빽빽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가 누구 하나 찾아와~ 하면 친구 원룸으로 가는 게 아니라 PC방으로 찾아갔었죠. 디아블로2,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정말 애들이 다 미쳐 있었었죠.

그리고 20대 얘기를 하면 술과 연애 얘기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엔 미팅, 소개팅 말고도 합동 MT를 가기도 했었어요. 남고 동문회에서 MT를 가게 되었는데, 남자들끼리 수련모임을 가면 무슨 재미냐! 라는 얘기가 나와서 공동 MT를 가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이제 제 위로 94, 95학년 형들의 오더가 떨어지면 1,2학년 애들이 나서서 경산에 대구과학대라던지 효가대라던지 이런 데에서 여자들이 많은 곳을 찾는 거예요. 간호학과라던가 여자들이 많은 곳을 찾아서 혹시 저희랑 같이 MT 가지겠어요? 경비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며 당시 경북외국어대학교라고 경산 쪽에 있는 간호학과랑 같이 MT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참 수많은 짝들이 탄생했었죠. 얼마 못 가서 헤어지긴 했지만요.

2004년  
영남대학교 대동제



출처 영남대학교 대학기록관리팀

맥스엔제니스의  
19년도 여름 MT



출처 맥스엔제니스 카페

학창시절, 댄스동아리는 어떤 곳이었고, 맥스앤제니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맥스앤제니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음... 그 당시 맥스앤제니스 이름은 우리가 다 같이 지었다기보다는 회장이 그냥 단독으로 지었어요. 맥스앤제니스가 당시 뭘 뜻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멋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회장이 지었던 것 같은데, 회장님의 강력한 의견으로 어쨌든 이름이 지어졌어요. 사실 이름이 먼저 지어지고 그 의미가 생긴 감도 있어요. 우리 동아리는 무조건 이 이름으로 해야 해 라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죠.

우리 댄스동아리는 보여주는 동아리기 때문에 무대를 따로 설치도 하고 노천강당을 대여해서 하기도 했었고, 따로 다른 행사하시는 분들에게 사정사정해서 빌려서 스피커, 마이크도 빌려 오고 여러 가지 빌려 오면서 공연들을 다 준비했었어요. 그때 추억이 워낙 좋았어서 직접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공연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저희 1기들은 모이면 아직도 그 얘길 많이 해요.

저희가 당시 12월에 공장이 추출 때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비공인 동아리라서 노천강당을 빌리는 게 허가가 안 됐고, 그래서 그 노천강당 바로 앞에 있는 공터에서 공연 준비를 했었어요. 발판을 세워서 연극동아리에서 빌려 온 조명을 달고, 밴드동아리에서 빌려 온 스피커나 마이크를 달고...

그래서 그 당시엔 정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공연을 준비했다는 기억이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기 회원들이 이제 벌써 40대인데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길 해도 이런 얘길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후배들은 이런 고생을 안 했으면 해서 시간이 지나서도 후배들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 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고요.



사진 맥스앤제니스의 공연  
출처 맥스앤제니스 카페



첫 공연이 정말 기억에 남으시겠어요. 그렇다면 다른 활동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을까요?

저희 동아리 큰 행사는 1년에 두 번 있는 정기공연인데, 그것 이외에도 우리 동아리를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었던 공연이 있었어요. 대외적으로 알리기보다는 학교에 인정을 받은 공연인데, 2000년도에 학교에서 국제관에서 전국의 고 3 학생들을 영남대로 초청해서 학교 설명도 하고, 우리 학교에 대한 홍보도 하며 입학설명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입학설명회를 준비하면서 학교 내 분위기를 알리기 위해 학교 안 동아리들을 불렀었어요. 본관에서 불렀는데, “자 우리가 입학설명회라는 걸 올해 처음 하는데 너희 댄스동아리가 공연을 좀 해줄 수 있느냐”라며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페이지를 받고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었죠. 약간 그때 학교에 인정을 받는구나 생각도 들고, 공식적인 동아리로 인정을 받기도 했어요.

당시 동아리방도 없어서 동아리로 인정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동아리방을 배정받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공연을 잘하게 되면 정말 인정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그 덕분에인지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우리 동아리가 입학설명회 때 공연을 하는게 연례행사처럼 남게 되었어요. 또 이 때문에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는 인원도 정말 많이 생기게 되었었죠.



사진 2004년 03.12 동아리 가두모집 맥스앤제니스  
출처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관리팀

저희가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된 동아리 다 보니까 생긴  
 굳어지는 전통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다 후배들이 참 잘해준 덕분이죠.  
 조금 웃긴 일화로는 국제관 당시 처음 생기면서 국제관에  
 뷔페식당이 생겼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 “너희에게 돈은  
 많이 못 주지만 대신 너희에게 밥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연하는 친구들은 10명 정도 밖에 안됐  
 었는데, 밥 먹으려고 30명 가까이 되는 공연 안 하는  
 다른 동아리 회원들이 오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 맥  
 스앤제니스 공연하러 왔는데요?”라고 말하면 무조건  
 들여보내 주니까, 대학생들한테 밥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식비가 나와서 그다음 다음 해 부터는 공연  
 하는 학생들만 딱 들여보내게 해주더라고요.



사진 맥스앤제니스 공연  
출처 맥스앤제니스 카페

동아리가 정말 유명해지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공연 이후 주변에서 동아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길 많이 들으셨나요?

“재네는 맨날 춤만 추러 돌아다니는 애들이고 머리도 빨갛고 힙합 한다고 옷도 질질 끌고 다니네”라고 말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다른 동아리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아리를 정말 부러워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정말 너희 같은 동아리에 들어가 한다” 라며 무대 위에서는 경험을 정말 부러워했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 동아리 애들은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우리 동아리 얘길 잘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6~9기 친구들까지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도 어디를 가서 댄스동아리를 한다고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죠.

듣고 있으니 동아리에서의 당시 내부 분위기도 궁금하네요.

저희는 아무래도 공연동아리다 보니 선배를 따지는 상하 수직 관계보다는 춤 잘 추는 친구가 일등이었어요. 정말 실력주위였죠. 근데 실력주위가 너무 팽배하다 보면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불만이 많이 쌓였었어요. 예를 들어 공연할 때, 메인 앞줄은 잘 보이고 메인 뒷줄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든 앞줄을 차지하기 위해 정말 많이 연습도 하고.

또, 아무리 선배라지만 실력이 이진 좀 아니다 싶으면 뒤로 빠지는 선배도 계셨지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싸우는 예도 있었고 댄스 동아리다보니 다들 성격이 외향적인 친구도 많지만, 내성적인 성격을 깨보고 싶어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 많은 노력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 대부분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선배들이 잘 끌어주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소 2학년이 되면 메인 앞자리로 최대한 보내주려고 하기도 했죠. 아무튼, 안력싸움이 좀 있었죠.

종규 씨에게 가장 뜨거웠던 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성적인 성격을 깨고 싶었던 경우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성격이 원래 외향적이거나 춤을 잘 춰서 동아리를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 다니면서 방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내가 학교에 다녀 봤자 무엇을 하지 하는 생각도 많았고.

영남대학교라는 곳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 이유, 버틸 수 있게 된 이유도 다 동아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동아리 회장이 오디션에 봐야겠다 했을 때 내가 춤을 출 수 있는데, 손목을 빼어 너무 아파 힘들다. 일단 뽑아주면 내가 다음에 혼자 무대에 올라가서라도 춤을 보여주겠다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동아리를 들어왔던 기억이 나네요. 정말 춤에 추자도 모르는 저였는데 이런 저를 회장이 되게 좋게 봤었나 봐요.

막상 근데 뽑아놓고 보니깐 “뭐야 이놈, 춤 하나도 못 추잖아”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누구보다 일찍 나오고 열심히 연습했더니 남들과 그래도 비슷하게는 출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다 같이 공연을 준비하고, 그리고 공연을 이뤄내고, 군대를 제대하고 동아리 회장을 지내고, 동아리가 이어져 나오는 것을 탄생부터 6~7년 학교생활까지 계속 관심을 지켜보면서까지, 내가 그래도 ‘맥스앤제니스’라는 동아리에서 정말 정을 두고 이 동아리에 나오기 위해서 학교에 오고 싶었고, 친구들 보고 싶어서 학교에 오고 싶었고 이런 부분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동아리가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졸업하고 몇 년 동안은 정기공연이나 다른 어떤 동아리 외부 행사라든지 있으면 찾아가고, 못 가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을 정도로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생각과 그때 학교에 가더라도 과 보다는 동아리가 더 주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학 생활의 일부분? 아니 절반 이상에 가까운 곳이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사진 출처 Unsplash

세 번째 이야기

## 꺼지지 않는 청춘, 경산의 열정

경산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등 10개 대학에 약 12만 명의 대학생이 재학 중에 있다. 2021년도 통계청 자료로는 경상북도에 18만 명 가량의 대학생이 재학 중에 있더니,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경상북도 대학생의 거의 반 이상은 경산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경산인만큼 대학문화에 관한 얘기를 빠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그중에서도 동아리에 관한 이야기를 꼭 담기 위해 많은 수소문 끝에 90~00년도에 학교를 다녔었던 동아리장들에게서 인터뷰를 취재할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던 뭐든 사실 바로 위 학번 선배랑도 한번 얼굴 보기 힘든 요즘이다. 특히나 매년 공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라면 더욱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열정과 열기를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갇혀 제대로 분출 한번 못 해본 지가 2년이 아니던가. 하지만 비대면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도 많은 학생이 다양한 공연과 전시와 같은 활동들로 식지 않고, 꺼지지 않고 저마다의 열기를 뽐어내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신입생들에게 자신들의 동아리를 홍보하거나, 또 거리모집을 벌여가도 하고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춤이나 노래 같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한다.

필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가슴속에 무시 못할 열정을 하나 품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랑, 지식, 관계, 경험 등 어느 것이든 누구든 불꽃 하나씩 품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글을 통해 이를 읽는 사람들이 다들 자신의 불꽃을 다시 피워냈으면 한다.

중요한 건 평화, 자유, 사랑 MY LIFE라는 노래 가사처럼  
모두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사진 2011년 05.27 영남대학교 대동제  
출처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관리팀

# 대학축제의 카니발적 세계관과 상실된 주체

축제는 금기로부터 시작된다. 사육제(謝肉祭)로 번역되는 카니발(carnival)은 예수의 고행을 추모하기 위한 단식 전에,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으며 즐겁게 노는 것에서 기원하였다. 언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라틴어의 카르네 발레(carne vale:고기여, 그만) 또는 카르넬 레바레(carnem levare:고기를 먹지 않다)가 어원이다.

기쁨이 아닌 고통을 바라보며 단독자인 신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종교적 의식이, 극단으로 나아가 축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은 한편 아이러니하다. 이러한 혼돈은 인간이기에 빚어지는 것이리라. 사순절 동안의 숭고한 기도를 위해 조용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간 전까지는 술을 부어 마시고 고기를 뜯고 가무를 즐기며 말 그대로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인간이다. 금기가 작동시키는 강력한 반동 기제는 인간을 춤추게 만들었다.

하지은 에디터



첫 번째 이야기

## 금기, 어울림, 자유; 축제의 본성

하지은

금기-카니발의 원리는 삶과 언어의 진실을 탐구했던 소설가 이청준의 『축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축제』는 장례를 배경으로 하여 축제의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다룬 작품이다. 어머니의 상례라는 엄숙한 의식에서 규범 파괴적인 축제의 의미를 찾고 그것이 유희성과 진지성, 자유와 질서가 넘나드는 경계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또, 가족이라는 복잡한 공동체와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 갈등의 생성과 소멸을 동시에 서사화하고 그 와중에 한편에서는 먹고 마시는 풍경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어울림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청준은 『축제』의 머리말에서 “작품을 쓰는 과정이 노인을 씻겨드리는 굿판”이었다고 했다. 작가 자신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내는 과정을 슬픔과 회한이 아닌 잘 씻겨서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자 하는 신명나는 굿판으로 택한 것이다. 이처럼 한국적 카니발의 특성은 웃프다. 금기에 저항하는 현실이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 유희와 오락이 오묘히 섞여 있다.

대학에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힘은 크다. 성인이 되는 동시에 한 생애를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는 언뜻 자유를 맞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자유는 곧바로 다시 억압된다. 그래도 낭만적인 청춘 문화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대학은 취업이 모든 것을 장악해 대학(大學), 큰 학문의 공간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지 오래다.

삭막한 현실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일 년에 한 번쯤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했던 학교의 여러 공간이 각양각색으로 머뭇의 공간이 되고 강의실과 연구실, 사무실에 있던 주체들을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축제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축제는 연예인 공연장과 주점으로 변해버려 그 본원적인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은 아닌지 해마다 우려와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나왔던 축제의 길을 다시 걸어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진 이화여자대학교 제76개교기념 5월의 여왕 대관식  
출처 국가기록원



사진 영남대학교 1967 청구대학 탄생일의 축제  
출처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관리팀

두 번째 이야기

## 라떼의 축제와 2000년대 축제의 쓴맛



사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홍능제  
출처 국가기록원

대학의 축제는 주로 5월에 열리며 공연, 전시,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대학별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전 시대별 대학축제의 변모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대학축제의 태동은 1960년대 외국문화가 대학에 유입되면서 대학 전체의 행사가 아닌 학과별, 단과대별로 시작한 토론회 중심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70~1980년대 대학생들의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화운동으로 기존의 축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대학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크게 하나로 모이는 축제'라는 개념에서 '대동제(大同祭)'로 변화되었다. 1990년대의 대학축제는 기존의 대동제와 다양성이 혼재한 시기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동제의 의미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장터, 연예인 초청행사 등 오락성 행사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의 대학축제는 대학의 청년문화와 대중문화가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는 시기로 연예인 초청, 기업체 홍보경연장, 주점문화 등이 대학축제의 핵심적 프로그램들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시대와 축제

60년대의 대학축제는 마라톤, 쌍쌍파티, 메이퀸(여왕) 선발대회 등 행사 위주로 진행되었다. 60년대 후반에 들어 외부인사 초청 학술대회, 발표회 등 학술제의 성격이 더해졌고, 70년대에 들어서 학술제, 예술제, 체육제 등 축제의 면모를 갖추었다. 60-70년대에 이화여대, 숙명여대, 수도여자사범대학교(세종대학교 전신) 등에서 개최된 여왕선발 및 대관식은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기도 하였다. 이화여대의 메이퀸 선발대회에서는 해군 군악대까지 동원하여 성대한 대관식을 열기도 했다. 8, 90년대에는 낭만과 비극이 함께 있었다. 잔디밭 위에서 통기타를 치거나 만들어진 무대가 아닌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에 모여 단체로 춤을 추고 놀았으며 그 외에도 시 낭송, 인간 두더지 잡기, 우유 빨리 마시기, 물풍선 던지기 등의 오락적인 행사가 성행했다.

학원 자율화와 민주화 열풍으로 고조된 사회 분위기가 운동의 중심이었던 대학의 축제를 정치색으로 물들이기도 했다. 1984년 부산대에서 열린 '효원 5월 민주제'는 '대학과 '사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광주항쟁, 을숙도 주민생계 문제 등 사회현실에 대한 고뇌가 담긴 노래와 시를 발표하고 마당극 놀이를 했는데, 이는 축제 앞에 시대가 있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1985년 직접 선거를 통해 부활한 부산대학교 제17대 총학생회는 "오늘날 대학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어둠을 밝혀 나감이 대학인의 사명일 때, 더이상 우리는 무국적(無國籍) 축제에 안주할 수 없다"라는 반성과 함께 '효원 대동제를 개막하였다. 사회문제에 대한 심포지엄, 초청 강연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햇불제, 마라톤 대회, 줄다리기 등의 행사를 개최하며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단결을 위한 장을 만들었다.



사진 이화여자대학교 77주년기념 오원의 여왕 대관식  
출처 국가기록원

사진 신홍대학교 제 7주년 개교기념 제 1회 대학제  
출처 국가기록원



2000년대에는 오락의 성격도 조금씩 변한다.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등의 단체 대결에서 1:1로 맞붙어 한 명의 승자를 산출하는 게임 대회로 성격이 바뀐다. 2000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서울대 스타크래프트 최강전'에는 6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동네 피시방에서 예선전을 치르기도 했다. 이때 한편에서는 펌프대회, 길거리 농구대회 등 너무 놀자판 위주로 대학축제가 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2002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이 축제경비를 아껴서 교수, 선배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범대인의 점심식사'를 개최하여 150여 명이 모여서 뼈다귀 해장국을 먹기도 했다. 아마 첫 자취생활에 자기 밥 챙겨 먹기도 힘들었을 학생들이 모여 해장국을 만들었다니 밥에 진심인 한국 사람들의 밥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영남대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면, 2005년에는 '압량별 대동제'에서 주체적 실천, 공동체 의식을 슬로건으로, 팔공산 선명요육원생 50명을 초청하고 자원봉사 학생 100여 명이 장애우와 짝을 이뤄서 축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다산 농악, 영남농악, 풍물, 소망풍선 날리기 등의 행사를 개최했는데, 특히 독도사랑집회에서는 재학생들이 정문 시계탑에서 경산시장까지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독도사랑캠페인을 홍보했다. 2009년 '별난대동제'에서는 건강과 봉사를 키워드로 자취생 요리대회, 캠퍼스 전등 끄기 캠페인, 금연 캠페인, 다문화가정 체험 등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 캠페인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축제를 열었다.

지역민과 함께 한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면 2009년부터 성북구와 국민대학교가 협력하여 성곽마을 일대에서 진행하는 월월축제(WALL月)가 있다. 월월축제는 마을 주민과 예술가, 대학생이 참여 주체로서 지역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성북구, 북정 성곽마을 달빛 스케치 문화 예술마당, 추억의 이발소'라는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머리를 잘라주거나 마을 달력 제작, 장기왕 대회를 열었고 국민대의 연극영화과, 무용과,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공연과 전시회를 하는 등 축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순천대학교에서는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향림대동제'를 개최해 유희만 즐기는 축제가 아닌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는 축제를 만들고 있다.



### 성성과 축제

‘유교걸’, ‘유교보이’는 ‘남녀칠세부동석’처럼 과거 유교사회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희화화하며 사용하는 유행어이다. 그만큼 한국의 성성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금기였고 오랫동안 비밀스럽고 때로는 불경스럽기까지 한 영역이었다. 그런 성이 대학축제에서 저항 혹은 파격의 이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2002년 경북대학교에서는 사회대 학생회와 대구 여성의 전화의 공동주최로 ‘피임페스티벌’이 열렸는데, ‘No 콘돔, No 섹스’라는 주제 아래 피임 기구 전시, 성 통념 퀴즈, 비디오 상영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콘돔 나눠주기 행사는 늘 논란이 많았다. 같은 해 부산대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에서 반성폭력특별주간행사의 하나로 ‘콘돔 서약식’을 진행했는데 교내 게시판에서 행사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기도 했다. 현재도 콘돔 회사에서 대학축제를 직접 스폰을 제안하는 등 꽤 많은 대학에서 축제 때 콘돔 나눠주기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반응은 역시 찬반으로 나뉜다. 너무 민망하고 오히려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는 반대 입장과 건전하게 성을 배우고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를 혁신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갈리는 것이다. 담론이 부재하면 왜곡된 침묵이 아우성을 친다. 대학축제 안에서 성 담론이 태동되는 것은 금기시된 것들을 발화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에 다름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의 축제는 대학의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샘솟았고 밝은 낮에도 환호성이 쏟아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교비로 운영되는 축제경비의 대부분이 비싼 연예인 섭외에 이용되고 갈수록 유명 연예인의 공연장으로 변해가는 대학축제는 라떼의 부드러운 정(情)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많은 대학과 학생, 교수, 학자, 문화평론가들은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성년이 포함된 아이돌 혹은 음악성이 부족한 가수는 섭외하지 않고 인디밴드와 락페스티벌 위주로 공연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사진 수도권여자사범대학교 메이퀸 대관식  
출처 국가기록원





세 번째 이야기

## 주체에서 객체로, 상실된 몸

유명하고 잘나가는 연예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이 대학축제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축제는 보통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가 기획·운영한다. 다수를 위한 하나의 장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갈수록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현실도 존재한다. 유명 연예인의 공연은 다수의 인원을 집결시키기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고, 또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기도 하다. 때문에 무조건 연예인의 공연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대학에 와서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공연을 직접 보면서 혈기 넘치는 또래 친구들과 뛰어놀며 함께 즐기는 것도 청춘만의 문화이다. 연예인들은 대학축제에 가면 오히려 기를 받고 간다고 말한다. 젊은 열정과 연예인들의 끼는 좋은 케미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연세대 축제에서 밤편지를 부른 아이유이고 그것은 레전드로 남아 있다. 해가 지는 어스름 저녁, 학생들은 스마트폰의 라이트를 하나 둘 켜고 전광판 속 순백의 아이유는 공기반 소리반의 목소리로 밤편지를 부른다. 그녀의 단발 사이로 은은한 5월의 바람이 불고 조명이 반사된 그녀의 피부는 투명함 그 자체. 그날의 완벽한 분위기는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분명 큰 힘을 주었을 것이다.

문제는 주체의 상실과 다양성의 측면에 있다. 다성적(polyphonic) 문학의 뿌리를 '카니발'에서 찾고 있는 러시아의 문학 비평가 바흐친에 따르면 카니발적 세계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자유와 평등, 둘째, 집단적 민중성, 셋째, 변화와 다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적 세계관은 세계 변혁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거의 대학문화는 포크음악, 통기타를 유행시키고 대학가요제, 강변가요제로 변모하며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대학 안에서 주체로서 개성을 마음껏 펼치던 자유로운 청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예인 공연을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러한 창조성과 개성은 다시 발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 능동, 주체에서 수용, 수동, 객체로 대학축제 참여자들의 위치가 전복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대학축제의 몸이 되어야 할 주체들이 상실되어가는 것이다.

또한 대학 구성원의 다수는 공연 위주의 축제를 즐기고 좋아하겠지만 그것을 선호하지 않거나 형편상 참여할 수 없는 구성원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는 만큼 나쁜 사람도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길 수 있는, 소수도 환영받는 축제가 필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지역민, 타 대학과의 연계 등이 있을 것이다. 소수주 주목받는 축제가 아닌 사랑방 같은 축제는 어떨까. 재주 있는 사람이 노래 부르고 춤추며 흥을 돋우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림꽃을 맞추며 덧셈공부도 하는 것처럼 속도의 공존이 필요하다.

사진 영남대학교 2014년도 대동제 중  
출처 영남대학교 대학기록관리팀



네 번째 이야기

#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하는가



사진 고려대학교 개교 73주년 기념 축제 현장  
출처 국가기록원

## 우리는 무엇에 취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놀이문화의 하나인 축제의 기원에서부터 대학축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자유가 전제된 카니발은 혁명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과거의 대학축제는 정과 사랑이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축제가 공동체와 단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βολ리 결론내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라메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살코기 세대'라는 말이 있다. 시사상식사전에 등재된 말로, 기쁨기를 뺀 살코기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배제한 삶을 지향하는 20~30대 젊은층을 이르는 말이다. 과거의 시대는 젊은 청년들을 한 데 모이게 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관계 맺기가 불편해지고 있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이제 축제 이전에 불안하고 외로운 영혼들이 가닿을 곳은 어디인가 고민하게 된다. 술과 음악에 취해도 그것은 찰나이다.

프랑스 혁명기에 자본과 문명이 급속도로 밀고 들어와 민주주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자행되던 폭력을 응시하던 사람이 있다. 파리의 시인 보들레르, 그는 우리에게 무엇에 취해야 하는가 묻고 있다.

“

언제나 취해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유일한 문제다.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땅을 향해  
그대 몸을 구부러뜨리는 저 시간의 무서운 짐을 느끼지  
않으려면, 실재없이 취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에?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무엇에나 그대  
좋을 대로. 아무튼 취하라.

그리하여 때때로, 궁전의 섬들 위에서, 도랑의 푸른 풀 위에서, 그대의 방의 침울한 고독 속에서, 그대 깨어 일어나, 취기가 벌써 줄어

들거나 사라지거든, 물어보라, 바람에, 물결에, 별에, 새에,

시계에, 달아나는 모든 것에, 울부짖는 모든 것에, 흘러가는 모든 것에, 노래하는 모든 것에,

말하는 모든 것에, 물어보라, 지금이 몇시인지. 그러면 바람이, 물결이, 별이,

새가, 시계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지금엔 취할 시간!

시간의 학대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취하라, 끊임없이

취하라! 술에, 시에 혹은 미덕에, 그대 좋을대로.”

”

「취하라」-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 황현산 옮김



사진 연희대학교 축제  
출처 국가기록원

#### 참고문헌

##### 논문

양기훈, 「대학축제 구성요소가 물입과 재참가의도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이상신, 「타자(他者)의 담론에게 말걸기 시대의 대학 문화」, 『학생생활연구』 제24집, 2002  
이경재, 「이청준의 축제에 나타난 축제의 복합적 성격 연구」, 『한국어문학회』 145호, 2019

##### 사이트

국가기록원,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uvFestival.do#>  
e-대학저널, <http://www.dhnews.co.kr/>  
“카니발”,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8478&cid=40942&categoryId=32180>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local=busan>

##### 사진출처

국가기록원

# 헤어스타일 그게 뭐라고

예나 지금이나 이발은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의 선택',  
'인간의 존엄'으로 머리카락 그 자체를 넘는 의미를 가진다.

오유진 에디터



경산이발테마관

GYEONGSAN BARBER SHOP MUSEUM

경안이용원

사진 경산이발테마관 외부 전경



사진 경산이발테마관 내부전경

# 헤어스타일과 금기

오유진

청년문화 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패션과 뷰티가 바로 그것이다. 헤어스타일은 단순 보여지는 이미지를 넘어서 청결, 혹은 직업에도 영향을 주며 자신의 성격과 신념,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기도 한다.

헤어스타일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유형이 변한다. 특히 1920년대 중후반에는 대중·소비문화의 확산과 서구적 스타일의 유행으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머리 모양과 의상, 장식, 언어, 의식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이 밀집한 공간은 '멋'의 상징이 되곤 한다. 경산 역사 대학과 청년의 도시답게 '멋'과 관련된 공간이 존재한다. 경산이발테마관은 경산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함께 기획하고 조성한 '자료보존 체험형 전시관'이자 이발을 테마로 한 최초의 전시관이다. 경산이발테마관은 이발 자료관과 중앙이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발 자료관에서는 이발의 역사와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895년 단발령 이후 등장한 이용업의 발전과정을 인터뷰, 신문,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공간을 둘러보며 한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이발의 역사가 금기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다.



사진 과거 중남이용원  
출처 경산신문사 사진전 1회 입장 하... 그... 박동섭 작

한국이발은 1895년에 시작되었다.

1895년 11월 고종 시기, 이발이 위생에 이롭고 직업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단발령이 공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바와 같이 당시 백성들은 단발령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다. 단발령이 공포된 후 전국적으로 유생과 지방 선비들은 의병을 조직해 활동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가를 통제하던 유신 정권 시기에도 시민들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마음대로 기르지 못했다.

당시 사회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군사 훈련, 개인의 시간을 통제하는 야간통행 금지령, 미니스커트 착용 금지와 더불어 남성의 장발 금지가 존재했다. 단발령이 시행된지 100년이 채 되지 않은 1973년, 다시금 단발령이 공포된 것이다. 1971년 9월 24일 윤주영 문화공보부장관이 10월 1일부터 내무, 법무, 보건사회, 문화공보부가 합동으로 풍속사범을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단속 대상은 장발과 미니스커트 등을 중심으로 국가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모든 행위였다.

경범죄처벌법에는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발을 한 남자'가 처벌대상으로 명시되었고, 긴 머리가 퇴폐 행위로 간주되어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강제로 머리를 깎았다. 국가는 무력을 앞세워 개개인의 세세한 일상과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 철저히 통제했다. 공포심을 느끼며 금기를 학습했고, 사회적 구성 방식을 사유했다. 경찰들은 바리칸과 가위, 30센치 자를 들고 시민들을 단속했고, 장발 단속에 걸린 시민들의 머리카락을 바리칸이나 가위로 깎았다. 시민들은 그 수모를 고스란히 떠안았다. 만약, 머리깎이를 거부하면 경범죄가 적용되어 즉심으로 넘겨졌다. 심지어 '장발족'은 예비군 훈련에도 참석 처리가 되지 않았다. 70년대 두발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옆머리가 귀의 윗부분을 전혀 덮지 않아야하고 뒷머리 역시 옷깃 윗부분을 가리지 않아야했다. 헤어스타일은 젠더의 문제이자 일반 시민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기도 했다.



사진 과거 장발규제  
출처 경산이발테마관

사람들을 억압하던 '장발 규제'라는 사회적 금기는 박정희가 피살되며 사라지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생에 대한 헤어스타일의 금기이다. 학생들의 용모 단정을 명목으로 많은 학교와 학부모들이 청소년의 머리길기와 스타일을 통제 하고 있다. 그러나 두발규제는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듯이 강자와 약자의 논리라는 것이다. 타인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 외에 타인의 신체를 통제하고 특정한 스타일을 강요하는 것 역시 명백한 폭력행위다. 역사적으로 머리카락의 통제는 힘이 있는 권력자가 힘이 없는 약자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수단이었다. 머리길이 통제 즉, 신체에 대한 통제는 당하는 자(약자)에게 굴욕이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발은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의 선택', '인간의 존엄'으로 머리카락 그 자체를 넘는 의미를 가진다.

# 경산 이발사가 들려주는 이발 이야기

“민중에게 일상적 삶은 전쟁이나 혁명보다 중요하다.”

-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 중



사진 추억의 이발관  
사진 출처 경산신문사 사진전, 최은성 추억의 이발관 심필선 작가

## 이용기능장이 직접 이발하는 집, 이발사 손경락

어릴 때 포항에서 초등학교를 나왔다. 중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는데 학비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했다. 혼자 숙이 상해서 그길로 대구에 와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배가 고파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 14살에 이발소에 취직을 했다. 일을 하다가 기술을 향상 시키고 싶어 영남 호텔에서 10년 가량 일을 했다. 나에게 이발은 평생 직업이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5~6년 뒤인 75년도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같이 내주는 자격증을 땀다. 당시에 스승이 얼마나 엄했으면 불고대로 내 팔을 지지기도 했다. 물탱크에 물을 넣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게에 물을 지고 다니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물을 다 쏟기도 했다. 손발이 다 얼고 트고 어려운 사정이 많았다. 그걸 참고 배웠다. 이발 일을 처음 시작했던 14살 때는 부모님 원망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 이용을 참 잘 배웠다고 생각한다. 일을 할 때 늘 보람차다. 면도를 하면 각질이 다 깎여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화장도 훨씬 잘 묻는다. 이발소에 와서 면도를 하면 좋은 점이 많다. 이발은 그냥 깎는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발면허는 내게 박사학위나 마찬가지, 국민이용소  
**이발사 박태화** (朴泰和, 1946년생)

"아내를 부둥켜안고 평평 물었다"  
 33년 동안 서울에서 이발사를 운영하다가 1975년 내 가게를 지었다. 그렇게 이발에서 오온 온으로 이곳에 땅을 사고, 1982년 건물을 지었다.

"1965년, 면허 취득 후 일당 100원"  
 1965년부터 이용소에서 일을 배웠다. 면허증이 없었을 때에는 일당이 80원이었는데, 면허증을 하고 나니 일당이 100원으로 올랐다.

"매자에 걸려 있는 이발사의 숨은 이력"  
 각종 검사 요청과 위촉장들이 배려다. 자영업사나 자업 활동을 하면서 자신과 알게 된 것이다.

"열이면 열, 면도를 하고 가던 손님들"  
 불고대까지 가는 손님을 감은 것처럼, 나이 지긋한 손님들이 사라지면 이용소에서 면도를 하는 풍경도 보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완벽함, 유달리 센 이발사들의 고집"  
 자기가 보지 못했거나 없었던 이발사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집이, 원하는 것과 유행을 잘 받아들이며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오죽가리며 흥내는 손님들이 내게는 최고의 칭찬"  
 이용소 문을 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지 싶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손님들, 이발과 면도, 양치질 등 이발사들에게 커다란 찬사를 쏟아주는 다 돌아왔다.

사진 경산이발테마관 내부



사진 중앙이용원 리모델링 전 실내 출처 경산신문사

**이발 의자 8대가 놓여 있던 집, 효성이발소, 이발사 최상호**

원래 취미와 소질은 기계공업 쪽이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공업 분야에서는 숙식을 제공해주는 회사가 없었다. 때마침 고모부님이 이발소에서 서비스업을 배워놓으면 앞으로 구김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다. 그렇게 고모부님 단골 이발소에 취직을 했다. 포항에서 이발 일을 하다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대구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달 월급을 받고 무작정 대구로 왔다. 이발소 운영은 군대 제대 후 선배와 함께 시작했다. 1년 정도 있다가 선배로부터 가게를 인수받았다. 당시 책자에 보면 사진들이 많다. 이발은 깊이를 알면 알수록 어렵다. 마네킹을 놓고 머리를 만들고 깎고 커트할 때와 진짜 사람을 앉혀놓고 머리 깎는 건 전혀 다르다. 자신있게 면허증 학원에서 나와서 시험에 바로 합격했다. 막상 사람을 앉혀놓고 머리를 깎으면 사람마다 머리모양과 높낮이,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니까 어렵다. 개개인의 차이에 맞춰 이발을 하는 건 경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내가 이발업에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정년이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내 건강만 유지하면 얼마든지 내 기술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밑천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자녀 공부도 시키고, 동생 결혼도 시키고, 그것만으로도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미용실에 가지만, 유행은 돌아오는 법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시 이발소를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발면허는 내게 박사학위나 마찬가지, 국민이용소, 이발사 박태화**

원래는 배가 고파서 요리를 꿈꿨다. 그러나 식당에서 3개월이나 일을 했음에도 밥 한끼를 먹지 못했다. 안되겠다 싶은 마음에 그곳을 뛰쳐나와 밥 주는 곳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국민 이용소를 알게 되었고 이발을 배워 면허증을 따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발은 중학교 졸업도 못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포부로 무작정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후회해 본 적 없이 만족한다. 우리는 2년 동안 체계적으로 머리를 감기면 면도사로 진급이 된다. 면도사로 2년을 하고 나면 가위질하는 것을 시작한다.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기계로 이발하러 온 손님에게도 가위로 연습을 한다. 그렇게 연습을 안 하면 가위질 할 곳이 없다. 가위질 하다가 애 엄마한테 뺨을 두드려 맞은 적도 있다. 귀한 자식 이용소 보내놓으니까 자기 연습한다고... 우리 세대는 그렇게 이발 기술을 배웠다. 1975년 12월 18일 처음으로 내 가게를 개업했다. 33년 동안 남의 집 세를 얻어서 이발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 82년도에 건물을 지었다. 건물을 짓고 행복해서 아내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발을 해도 도로가에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발을 배운 것에 대한 긍지가 많다.



사진 일성 이용소 사진 출처 경산신문사



사진 현대미용실 사진 출처 경산신문사



사진 중앙이용원 내부 전경

나는 경산이발테마관에서 영상물을 통해 경산 지역 이발사들의 삶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 '이발사'라는 한 직업인의 이야기를 뛰어넘는다.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 얼핏 보면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입장처럼 보이는 기록도 사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술사'라 부른다. 누구나 알다시피 개인은 사회와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100% 고유한 개인의 입장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머리카락’이라는 소재 하나에도 당시 사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고, 나는 이발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 경산의 역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었다. ‘마을의 기록’에 대해 설명하는 <누구나 마을 아카이브>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민중에게 일상적 삶은 전쟁이나 혁명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직접 기록해야 한다.” 마을을 기록하고 마을에 사는 사람을 기록하는 일은 그 지역에 깊이를 더한다. 나는 수많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 남아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 스스로가 기록의 주체가 되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역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할 수 있길 바란다. 경산이발테마관은 헤어스타일을 매개로 경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작지만 매력적인 공간,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방문해 다음의 질문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진 영남대학교 앞 오렌지거리

우리의 일상엔 당연한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 시대별 헤어스타일 분석

1910년에는 조선시대 말기에 단발령이 내려지고 일제강점기에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헤어스타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일본에 의해 강제 시행된 단발령(斷髮令)은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몇 차례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김소원 에디터  
(일러스트레이션 - 김소원)

**1910년** 헤어스타일의 혁명

1910년에는 조선시대 말기에 단발령이 내려지고 일제강점기에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헤어스타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일본에 의해 강제 시행된 단발령(斷髮令)은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몇 차례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남성의 단발은 강제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모발을 길게 쌓아 올리거나 내리는 형태에서 관리자들이 우선적으로 머리를 자르면서 시작되었고 여성은 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서서히 이루어졌다. 여성의 근대화는 머리를 자르는 것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 1907년 동경 유학생 최활란은 팜프도어 헤어스타일을 하고 귀국하였는데 이 모양은 새로운 여성 헤어스타일로 화제가 되었다.

**1920년** 신여성의 출현

1920년대에는 일제에 의해 한복보다는 양장 착용을 권장하여 신여성을 중심으로 양장이 확대되었다. 정치, 경제적 평등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를 통해 욕구를 표현하는 출구로서 외모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한 독일의 여성들이 심기일전을 위해 단발 스타일을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단발을 한 여성은 강향란, 강명화, 무용가 최승희였다.

**1930년** 웨이브(Wave) 파마의 등장

193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화산 미장원을 개업한 오엽주는 세팅(setting), 아이론(iron), 전기 퍼머기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남자머리를 자르고 퍼머먼트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유행시켰다.

**1940 ~ 1950년** 미용실의 대중화

1940년대 초, 일제 말기에 금지되었던 퍼머먼트 웨이브(permanent wave) 헤어스타일이 광복 이후 다시 등장하면서 일반 여성들도 아이로나 세팅 등의 웨이브를 하였으며, 미용업이 광복 이후 본격적인 전문직으로 자리 잡으면서 1950년대에는 미용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 숏컷트의 인기

1960년대에 미니숏컷가 인기를 끌었고 의상에 어울리는 숏컷트(short cut)와 자연스럽게 간결한 머리의 헤어스타일이 인기를 얻었다. 1965년 10월에는 대한 미용사회를 창립했고 1966년 3월에는 보사부로부터 사단법인인가를 받았다.

**1970년** 장발의 인기

1970년대는 세계적인 불황기로,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하던 시기이다. 70년대의 경기 침체는 우리의 생활양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여성들은 실용적이고 간편한 스타일의 의복과 헤어스타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초, 군사정권의 억압된 사회 분위기에 반발하는 의미로 남성은 장발이 유행했고, 여성은 미스코리아(Miss Korea) 머리로 불렸던 업스타일(up-style)이 인기를 끌었다.

**1980년** 헤어스타일의 트렌드(Trend)

1980년대에는 컬러 TV가 등장하면서 헤어스타일도 유행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여 일반인들이 연예인의 머리를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모발 염색의 인기

1990년대에는 초반부터 헤어 스타일링(hairstyling)이 형태나 질감에서 모발염색으로까지 확산된 시기이다.

**2000년** 헤어클리닉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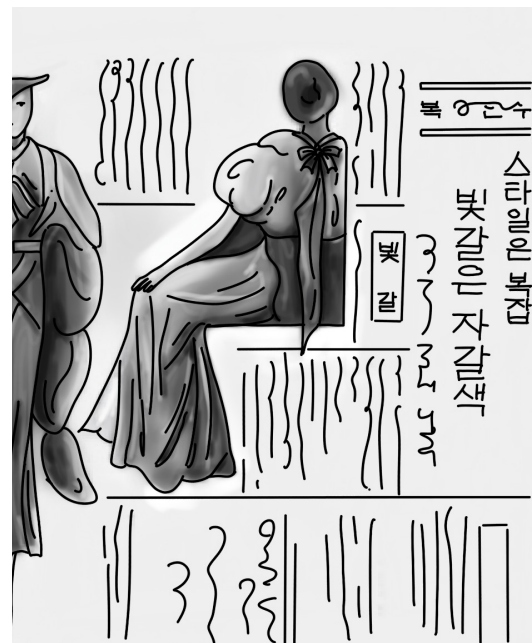
2000년대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공존하고 모발과 두피에 대한 헤어클리닉(hair clinic)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발의 형태는 개성을 살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연출하고자 하는 이들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의 헤어 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행의 주기도 매우 짧아졌으며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의 헤어스타일과 화장 형태 등이 유행하고 헤어스타일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고객들이 한 가지 커트 형태에서 여러 가지 헤어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되었다.



# 1910s

## 팜프도어의 유행

1900년대에는 초기 과학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교통, 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01년 서울에 이발소가 등장하게 되고 헤어 커트가 시작되었다. 1910년대 1차 세계대전(1914~1918년) 후의 서구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현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여전히 롱 헤어스타일(long hair style)을 많이 선호하였지만 예전보다는 덜 과장되게 부풀렸으며, 진보적 여성들 사이에서는 단발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07년 동경 유학생 최활란(崔活蘭)은 당시 동경에서 유행하던 팜프도어(pompadour ; 머리를 치켜 올려 빗어 정수리에 틀어 엮고 리본을 매거나, 이마 위에 모자의 챙같이 볼썽 내 밀어 빗어서 히사시가미, 챔머리라고도 함) 헤어스타일을 한 후 양말에다 검정 구두를 신고 검정 짧은 통치마를 입고 귀국하였는데 이 모양은 당시 최첨단의 새로운 여성 스타일로 화제가 되었다. 점차적으로 귀밀로 풀어 빗고 아이들이나 학생은 머리끝을 풀어놓기도 하였다.



# 1920s

## 단발미인, 모던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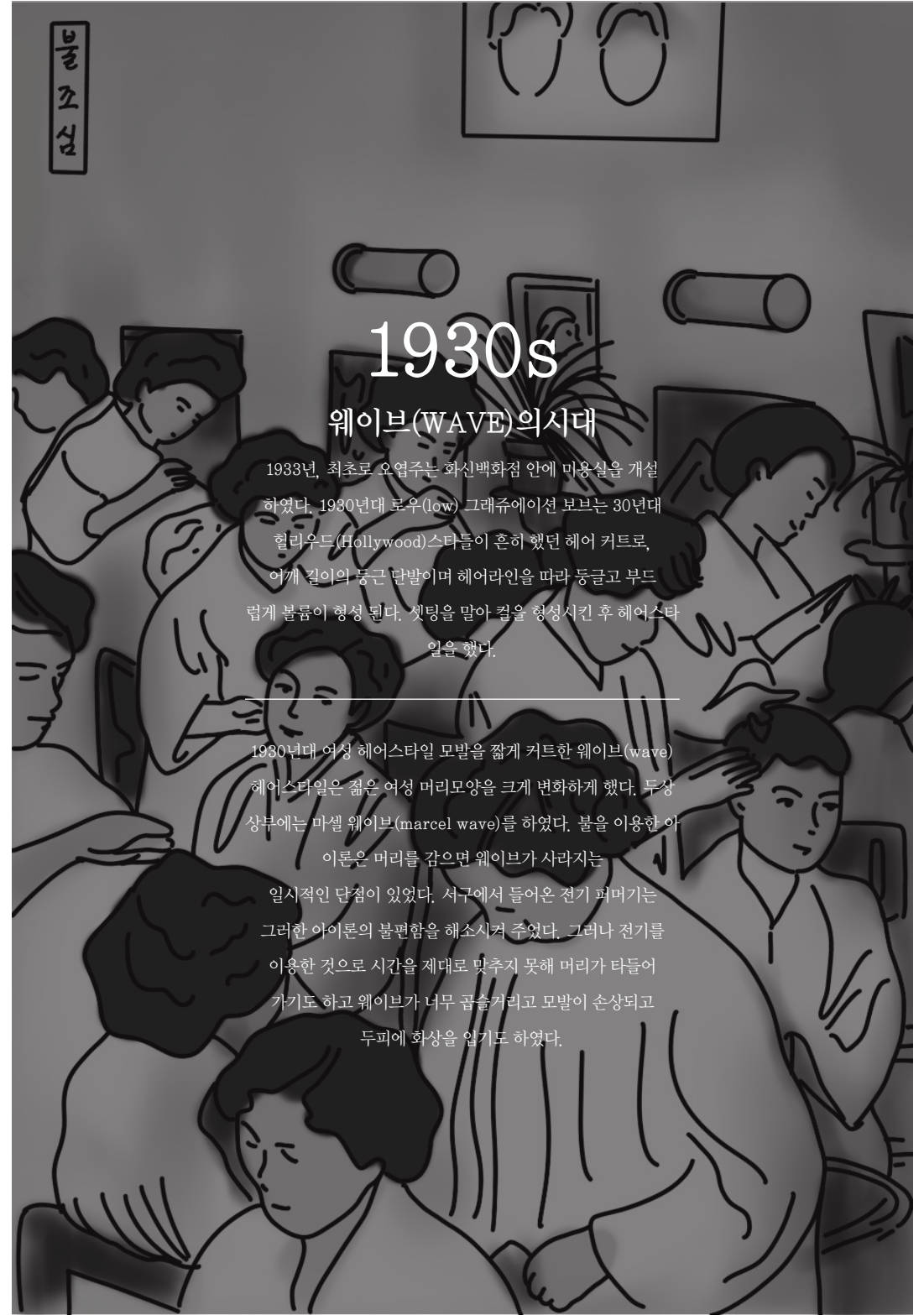
1920년대에는 단발 미인, 모던 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단발형 헤어스타일이 193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신문물을 빨리 접한 기생인 강명화, 강항란이 처음으로 단발을 하였다. 1920년대 그래쥬 에이티드 보브(graduatedBob)는 앞머리에서는 거의 원샐스(one-length) 라인(line)을 이루나 아랫부분에서는 커트된 단면이 드러나면서 볼륨(volume)을 형성한다. 영국풍의 스킨 룩(school look)이 국내에 유입된 이후 오랫동안 여학생들의 헤어 커트로 애용되었다. 1920년대에는 단발형 헤어스타일이 193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현대무용가인 최승희의 헤어스타일은 샤프하고 심플한 이미지의 보브 헤어스타일의 대명사로 평가되었다. 젊은 여성들은 머리를 뒤로 말아서 올린 팜프도어를 하였고 새로운 문명과 소비문화를 즐기던 모던걸이 양장에 양산을 받쳐 들고 다닌 시대였다.

# 1930s

## 웨이브(WAVE)의 시대

1933년, 최초로 오얏주는 화신백화점 안에 미용실을 개설하였다. 1930년대 로우(low) 그래쥬에이션 보브는 30년대 할리우드(Hollywood)스타들이 흔히 했던 헤어 커트로, 어깨 길이의 둥근 단발이며 헤어라인을 따라 둥글고 부드럽게 볼륨이 형성 된다. 셋팅을 맡아 키클을 형성시킨 후 헤어스타일을 했다.

1930년대 여성 헤어스타일 모발을 짧게 커트한 웨이브(wave) 헤어스타일은 젊은 여성 머리모양을 크게 변화하게 했다. 두상 상부에는 마셀 웨이브(marcel wave)를 하였다. 볼을 이용한 이론은 머리를 감으면 웨이브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단점이 있었다. 서구에서 들어온 전기 퍼머기는 그러한 아이론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었다. 그러나 전기를 이용한 것으로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머리가 타들어 가기도 하고 웨이브가 너무 곱슬거리고 모발이 손상되고 두피에 화상을 입기도 하였다.





## 1940s

### 웨이브 전성시대

1940년대에는 긴 헤어 스타일보다는 미디움 (medium) 정도의 짧은 헤어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옆 가르마나 앞가르마를 중심으로 전두부에 적당히 볼륨을 주어 세우고, 웨이브를 줌으로써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짧고 둥근 형태의 헤어 커트로 풍성한 볼륨을 표현할 수 있었다. 약간 컬(curl)이 형성된 모질에 잘 어울리며 양쪽 사이드(side)에서 백 포인트(back point)까지의 그레쥬레이션 형이다.

50년대에는 보다 길고 둥근 형태의 커트를 많이 했다.

전기 퍼머는 쇠퇴하면서 콜드 웨이브 퍼머, 전기 퍼머, 불 파마, 가는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아라이(잘게 묶는다는 뜻) 아이론 등이 유행했으며 층이진 레이어 형(increase-layered form) 헤어스타일은 일제강점기부터 8.15 광복 초기까지 유행하였다. 광복 이후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어깨에 못 미치는 길이의 단발에 퍼머를 하여 옆 가르마를 하는 스킵 웨이브(skip wave) 헤어스타일이 많았으며, 1948~1949년경에는 머리가 짧아지고, 머리의 아랫부분에만 웨이브가 있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광복 후의 퍼머는 주로 전기 퍼머였으나 북한의 수평 수력발전소에서 남한 측으로 보내주는 전력 공급을 중단하자 불 퍼머(가봉 퍼머)를 개발하여 시술하였다. 1941년 층이진 레이어 형(increase-layered form) 굵은 웨이브 아이론 헤어스타일을 한 아미라 가극단의 여성 단원의 헤어스타일이 보인다.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문  
화중심이 유럽 (Europe)에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대중음악인 락큰롤

## 1950s

### 대중의 이상, 락큰롤

(Rack'n roll)이 크게 유행하면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가 새로운 대중의 우상이 된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또한 영화, TV, 카메라(camera)가 등장함과 동시에 미국 할리우드(Hollywood)의 영향으로 칼라(color)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1950년대에는 크리스천 디올(Christian Dior) 룩(Look)의 영향으로 가능한 한 머리형을 가장 작게 표현했다. 긴 머리도 더욱 시술 각도를 높게하여 층을 주었다고 한다.



1950년대 10대 소녀들은 긴 머리를 리본 (ribbon)을 이용해 묶어 내린 포니테일(pony tail) 스타일과 53년 영화 「로마의 휴일」의 주인공인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경쾌하고 보이쉬(boyish) 한 느낌의 짧은 헤어스타일은 프린지 모발을 짧게 잘라 이마에 내려붙인 감쪽같은 실용적인 헤어스타일로 헵번스타일 (Hepburn style)이라고 하며 크게 유행하였다. 1957년 미스코리아 진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유행과 무관하지 않게 층이진 레이어 웨이브를 이용하여 S자형의 웨이브로 귀를 덮는 로맨틱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측두부와 후두부를 중심으로 풍만한 웨이브를 주고 머리의 끝을 바람에 날린 듯 올려주고 앞이마에 머리를 내린 스타일인 백조 라인 (swan line)이라 불리는 굵은 웨이브 헤어스타일도 볼 수 있다.

특수층과 부유층이 주 고객이었던 미용실이 대중화되었으며 일반 여성 고객들도 많이 늘어났다. 유럽에서 일어난 건축 예술사조인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느낄 수 있는 비달사순의 1964년 커트 작품은 기하학적(geometric)인 빗질과 커트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브로우 드라이어(blow dryer)란 새로운 미용기구와 헤어 커트에 의해 자연스런 머릿결의 움직임이 있는 웨이브 헤어스타일이 생겨났다.

## 1960s

### 높고, 볼록한 헤어

비달사순(Vidal Sassoon)은 4.5인치의 작은 가위로 블런트(blunt) 커트 기법을 사용하고 적은 양의 두발을 한 패널(panel)로 섹셔닝(sectioning)하여 정교한 헤어 커트를 하며 포인팅(pointing) 커트 기법을 이용하여 헤어 커트를 한다. 비달사순이 창작한 기하학적 헤어 커트 작품인 클래식 밥(Classic Bob) 스타일은 1963년 유명한 배우인 낸시 쿵(Nancy Kwan)의 두발을 과감하게 헤어 커트를 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파이프 포인트 커트(pipe point cut) 작품은 간결하면서도 복잡한 선으로 구성된 모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살린 새로운 헤어커트형태이다.

간결한 헤어스타일과 정수리 부분에 높고 볼록한 형태의 공기를 넣어 부풀린 것과 같은 백콤을 넣거나 부분 가발을 이용한 스타일과 곱 말음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 로켓 라인(rocket line)이라는 귀 양 끝이 뾰족하게 뻗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64년 여자 대학가에서는 불 퍼머먼트 웨이브 스타일을 하였고 대부분의 부인들 사이에서는 업스타일이 유행하였으며 1965년경부터는 가발 붐이 일기 시작하여 헤어스타일을 얼굴형과 옷차림에 맞춰 개성에 맞게 선택하였다. 1960년 미스코리아 여성은 곱말음(out curl) 기법을 이용하여 로켓(rocket)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1963년 미스코리아 여성은 이마를 내놓고 여러 형태로 과장되게 정수리 부분에 볼륨을 주어 부풀어 있는 모양의 크라운 봄베게(crown bombege)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1970s

## 펑크룩이야!

1964년 월남전이 발발했고 이로 인해 인간성 상실을 경고하고,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반전운동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저항문화가 확산되었다. 비달사순의 영향으로 헤어 커트 붐(boom)이 형성되었다. 펑크(punk) 현상은 모히칸(Mohegan) 족의 헤어스타일, 공포감을 자아내는 메이크업, 폭력적인 이미지의 액세서리, 혐오스러운 복장 등의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띠어서 그들의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을 표현하였다. 현재까지도 액세서리나 헤어스타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1970년대는 미디움 형이나 롱레이어 형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에 유행한 인버티드(inverted) 레이어형은 60년대의 볼륨 있는 스퀘어(square) 형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 모발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윗머리에 부피감이 없는 헤어스타일이 요구되었다.

여성들 사이에는 브로우 드라이를 이용한 바람머리라고 불리는 유연하고 자연스러운 머릿결의 움직임을 표현한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걸 말음(out curl), 안 말음(in curl) 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연출되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간편한 스타일의 퍼머넌트 웨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바디 퍼머넌트 웨이브(body permanent wave)는 머리끝에다 웨이브나 컬을 만들어 웨이브 스타일로, 샴푸 후 스스로 손질하여 스타일링 할 수 있었다.

1976년 미스코리아 미 여성은 브로우 드라이를 이용한 바람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고, 1976년 미스코리아 진 여성은 굵은 로드(rod)로 와인딩(winding)한 바디(body)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을 이룬 시기로서 몸매 가꾸기, 메이크업, 패션 등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부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던 시기였다. 오일쇼크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반영하듯 과장되게 부풀린 앞머리나 불규칙한 퍼머 스타일이 유행했으며, 8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헤어 스타일에 있어서 남녀 구분은 점점 없어져 갔다. 1980년대 록커 룩 (rocker look) 레이어는 록커 룩이 패션뿐만 아니라 헤어디자인에 활용된 방법으로 짧은 윗머리에 아랫부분의 모발들이 밀착되며 완전히 뒤집혀 당겨지며 층이진 형태이다. 당시 패션 트렌드인 역삼각형 실루엣에 어울릴 수 있도록 웨이브가 많이 형성된 부풀린 모습으로 스타일링 되었다.

1980년대 초에는 후두부에 클리퍼(clipper)로 긴 숄털이나 머릿결을 거슬러 밀어 올린 펑크 헤어(punk hair)와 같은 중성적인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스트레이트 퍼머넌트와 긴 머리에 굵은 퍼머넌트 웨이브가 함께 유행하였으며 짧은 머리의 취향에서 차츰 그래주에이션 형과 인크리스 레이어 형의 혼합형 스타일의 볼륨감과 긴 길이를 유지하는 헤어 스타일을 하였다. 유행에 민감한 여성은 기능적이고 아름답고 풍부한 움직임이 있는 단발 스트레이트 헤어 스타일을 주로 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헤어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의 헤어 스타일링 제품들이 보급되면서 앞머리를 높고 뽀뽀하게 세우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86년 미스코리아 여성의 보브 퍼머 헤어 스타일과 일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앞머리를 높게 세우고 스타일링 제품으로 고정시킨 형태의 1983과 1987년 미스코리아 여성의 헤어 스타일이 보인다.



# 1990s

## 더듬이의 등장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인 특정한 정형화된 것이 없다는 점은 헤어에서도 나타났다. 전통적인 헤어 커트에서부터 가볍고 자유분방한 스트록 커트(strock cut)까지 각각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달랐다. 커트에 이용하는 도구 역시 가위, 레이저, 클리퍼를 중심으로 도구들이 다양화되었다. 1990년대는 다양한 길이의 헤어 커트가 나타나지만 그중에서도 보브 레이어와 같은 두상이 작아지게 보이면서 무난한 보브 길이의 변형 커트가 많았다. 특히 비달사순의 컨템퍼러리(contemporary) 커트 시리즈에서도 레이어링 테크닉에 의한 보브의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모발염색 산업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미용 산업이 발전했다. 염색 및 탈색이 유행하였고 그것으로 인한 모발 손상과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이 커지면서 모발 및 두피의 트리트먼트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자연스러운 퍼머넌트 웨이브를 한 후에 무스나 젤을 이용하여 컬(curl)과 웨이브(wave)를 연출하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90대 초에 젊은 여성층에서는 뒤쪽 머리는 그레쥬레이션형 커트를 한 후 옆머리는 전대각 파팅의 사선형으로 자른 보브 헤어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언밸런스 스타일(unbalance style)의 변형된 단발이 주류를 이루었다. 머리 술이 많고 곱슬머리인 여성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이트 퍼머가 인기를 얻었고, 후반기에는 전기기기로 열을 이용하여 모발을 직모로 펴서 찰랑 거리게 보이는 매직 스트레이트 퍼머가 인기를 끌었다. 헤어 색상은 무거워 보이는 색보다는 블리치(bleach)와 하이라이트(highlight)를 강조한 밝고 세련된 스타일의 모발염색이 유행하여 다양한 색의 염색을 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히피(hippie)와 에스닉(ethnic)의 영향으로 아프리카 특유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헤어 장식에 있어서 플라스틱이나 철사, 깃털, 실 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소재 및 이미지를 표현한 다양한 질감을 응용할 수 있는 땅는 머리, 레게(reggae) 머리 스타일과 붙임 머리가 유행하였고, 네추럴리즘(naturalism)의 영향으로 가벼운 질감과 로맨틱시즘(romanticism)의 풍성한 웨이브 스타일이 나타났다. 2000년대 중반에는 머리카락의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층이진 샷리 커트나 원랜스 커트나 상관없이 적당한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주는 것이 유행이었다. 2000년대는 1960년의 장방형 실루엣이 등장하면서 더 길고 슬림한 실루엣으로 표현된다. 표면적으로 디스커넥션(disconnection)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발과 두피에 관한 관심이 커져 헤어클리닉(hair clinic)에 관한 사업도 증가하였다.

# 2000s

## 밀레니엄!

스트레이트, 긴 머리 곱은 웨이브, 가벼운 느낌의 층이진 레이어드형 커트, 두상에 볼륨감을 주는 여성스러운 퍼머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앞머리의 술을 짧게 하여 앞머리를 일자로 내리는 뱅(bang) 헤어스타일과 레트로(retro) 풍 헤어스타일인 가로로 확장된 자연스러운 웨이브 스타일인 물결 웨이브 퍼머가 호응을 얻고 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발의 형태는 개성을 살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연출하고자 하는 이들로 인하여 여러 형태의 헤어스타일이 공존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논문

노희송, 서선민(2009) "우리나라 여성헤어스타일의 시대별 연구, 원광보건대학 미용피부관리과, 한국 메이크업 디자인 학회지 제 5권 제 1호 2009<연구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나윤영(2001). "한국여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아트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용교재연구회(2007). "종합미용이론", 유신문화사

이효숙, 김은영(2006). "얼굴형의 특성에 따른 헤어스타일 연구"

하성기(2007). "베이스 헤어커트의 응용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미용실과 우리들

미용실은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 중 하나라 생각이 든다.

김가연 에디터

본 이야기는 경험에 기대어 만들어져 개인적인 관점에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 우리는 왜 미용실에 가면 작아질까?

김가연

얼마 전 엄마가 미용실 갈 시기가 되었다며, 대신 예약을 해달라고 했던 날이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깔끔하게 가꿔야 한다면 나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라, 평점이 꽤 괜찮은 동네 미용실을 예약해 드렸다. 여태 다녔던 미용실이 시내로 옮겨가게 되면서 오랜만에 새로운 미용실에 간다며 예약한 날부터 들떠있던 엄마는 짜증이 치솟은 채 카톡이 날아왔다.

‘딸, 이제 여기 다시는 못 올 듯.’

‘엥 왜? 가게에 적힌 가격표보다 비싸?’

‘매직 셋팅이랑 씨컬 파마해서 16만원이야.’

‘엄마가 매직을 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단발시술인데도 너무 비싸다.’

‘물으니까 살짝 뜨고, 곱슬기도 살짝 있어서 해야 된대.’

‘굳이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말하지.’

‘잔곱슬이 있어서 머리 위가 지저분해진다는데, 그 말 들으니까 해야 할 것 같아서... 16만원 써도 마음에 안 드니까 너무 바가지 쓴 것 같아서 속상하네.’

엄마는 예상하고 갔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시술 비용을 부른 헤어 디자이너에게 조금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이내 설득을 당했다. 비싼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에 반해 비싼 시술 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상심했다. 더군다나 원래 가던 미용실이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꺾충 뛰어버린 가격에 실망하여 고심 끝에 결정한 곳이었기에 더 못마땅한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미용실이 즐비하고 있지만, 기대를 충족시키는 곳을 찾지못한 것이다.

너도, 나도 바깥에 가격까지 제시하며 누가 더 저렴한지 경쟁하고 있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면 가격은 2배가 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미용실에 가는 건 언제나 긴장감 넘치며, 약간의 두려움과 아주 작은 설렘을 가지고서 들어선다. 이제껏 다양한 미용실을 곳곳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헤어 디자이너와의 대화는 늘 불편하며, 한편으론 걱정스럽다. 엄마가 헤어 디자이너에게 설득을 당한 것처럼 나 역시도 곱슬머리에다 머리술이 많아 늘 미용실에 가면 다양한 시술들을 추천받게 되고,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허다해 미용실에 가기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가지만, 매번 무방비 상태에 놓인 것처럼 시술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실 추천해준 시술들을 꼭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미용실 자리에 앉으면 오기 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 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미용실 의자에 신묘한 힘이 깃들여 있는 것일까. 이 때문에 항상 생각했던 가격과 다르게 1.2 ~ 1.5배 정도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편이다.

또 한편 곱슬머리에다 최고의 머리술을 가진 나는 고난도의 손님으로 미용실을 갈 때마다 핀잔 아닌 핀잔을 듣는 편이기도 하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실 갈 때마다 머리술이 많다며 대놓고 눈치를 주는 곳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나는 미용실에서 제시하는 돈을 정당하게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행여 또 머리술이 많다고 핀잔을 들을까,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부를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미용실에 들어선 적이 제법 많다.

아주 어렸을 적 엄마 손을 잡고 간 미용실 갔던 길은 마냥 설레었다. 미용실에서 주던 요구르트를 먹고 나면 단정해진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 하루 종일 거울로 보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릴 적엔 나의 취향이라고 할 것이 없어서 단정해 보이기만 해도 만족스러워 그럴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흘러 걸모습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사춘기 시절엔, 미용실에 가는 길이 마냥 설레지 않게 되었다. 요구했던 길이보다 훨씬 머리카락이 짧아지기도 하는 미용실 거울을 보며 울상을 짓던 일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두 발규정에 민감했던 중학생에게 1mm는 매우 큰 단위였기에, 머리카락을 맡기는 일은 시험을 치는 것만큼 긴장되는 마음을 안게 되었다.

어릴 적 단정해 보이는 것만으로 충족했다면, 커가면서 취향이라는 게 하나씩 생기자 보니 단정한 모습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바라게 되면서 기대치가 더 높아지게 된 것 같다.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 그간 규제되었던 복장과 머리카락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미용실을 찾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었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걸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미용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간혹 미용실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모습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다음날 머리를 감고 나면 만족했던 어제의 내 모습은 더 이상 만날 수 없기도 하다. 디자이너가 말해준 꿀팁대로 아무리 먼저 보아도 어제의 내 모습을 재현할 수 없어 매번 낙담하면서도,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이번엔 뭔가 다를 수 있다는 괜한 기대를 자꾸 걸게 된다. 갈수록 비싸지는 시술 비용 때문인지, 디자이너의 따뜻한 응대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과 별개로 미용실에 갔다 오고 나면, 번번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의 머리술로 인한

긴 시술 시간과 더불어, 그 시간 동안 디자이너와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주고받고 신상정보를 조사당하는 일은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나에게 있어서 사소하지만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미용실에서 꽤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할 때 자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있게 되었다.

물론 사람 성향에 따라 이런 대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기가하겠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가벼운 대화를 넘어 사적인 이야기까지 묻게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 불편한 상황은 단순하게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수다로 가볍게 시작했던 것들이 시술 혹은 제품 영업으로 이어지기도 해 난처하기도 하다. 여러 가지 미루어 보아 미용실이란 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장소 중 하나인 곳이라 생각이 든다.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근 10년 사이에 6천원을 주고 커트를 했던 과거와 달리, 2만 원이 기본인 시대가 되었다. 파마나 염색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비용이 올라갔다. 올라간 가격만큼 그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갔지만, 만족감은 오히려 떨어졌다. 실은 나는 만족하지 못함에도 억지웃음을 짓고 미용실을 나온 적이 많은데, 이미 잘린 머리카락을 다시 되돌릴 수도 없으며, 수습하는 시간을 또다시 허비하기엔 이미 긴 시간 동안 녹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그려진 이상적인 모습을 타인이 구현해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희미하게 어렴풋이 그리는 모습을 재현해 내는 것은 참으로 까다롭고 힘이 겹다. 하지만 훌쩍 올라간 시술 가격은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내가 그리던 모습을 가장 유사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으레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이다. 수요에 따라, 혹은 물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이치라고 하지만, 그에 따른 기대와 만족을 충족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과거에 사랑방이었던 이곳은 자의에 의해, 타의에 의해 식어버려 사랑방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EPILOGUE

이 책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역의  
물랐던 이야기들을 담고자 한 인디잡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이해 없이 마냥  
대도시로만 가고자 하는 이유로 많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자산을 알고, 그러한 것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면 소멸위기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  
디잡지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해있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매물차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끼고, 사  
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살롱 드 경산」  
인디잡지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지역민들에게 바  
칩니다.

청년희망 Y-STAR 사업단 안병욱



디자인 피드백과 회의  
잡지 구성과 컨셉 피드백과 회의

10월, 청춘꿈지락에서  
9월, 청춘꿈지락에서

Y-STAR 서포터즈 출간식  
Y-STAR 성과보고회



## 청년희망 Y-STAR 사업단

청년희망 Y-STAR 사업단은 경상북도 「청년 행복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경산시, 영남대학교가 함께 '청년희망도시 경산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복합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청년 문화 창조, 지역 사회 혁신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 창업 및 창작 콘텐츠 공간 조성, 지역의 재능 있는 인재 양성, 청년 문화와 예술 창조 및 확산, 청년 생태계 구축 공간 조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업단 홈페이지([www.y-star.org](http://www.y-star.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사업단은 학업, 취업, 출산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역의 풍부한 창업, 교육 콘텐츠 개발, 활용을 통해 지역 청년 일 자리를 창출하고 우수 인재를 지역에 정착 유도하여 지역 청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청년희망도시 경산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청년희망도시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롱 드 경산**

Salon de Gyeongsan

---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청년희망 Y-STAR 사업단

**저자** - Y-STAR 인디서포터즈 3기

김가연 Gayeon Kim

김소원 Sowoen Kim

오유진 Yujin Oh

하지은 Jieun Ha

황준석 Junseok Hwang

**기획**

안병욱 Byungwook An

**편집**

김가연 Gayeon Kim

**디자인**

표지디자인 김소원 Sowoen Kim

김가연 Gayeon Kim

내지디자인 황준석 Junseok Hwang

**제작**

케이비팩토리

**사진출처**

Unsplash

경산신문사

국가기록원

영남대학교 대학기록물관리팀

---

본 도서는 경상북도 「청년 행복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경산시, 영남대학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nstagram @ystar1871



##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청년’에 대하여

“... 도시는 그 속에서 사는 시민들이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는 시민이 어떠한 사회를 전제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가 하는 점과 시민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 장기용, <사람, 도시, 건축> 중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 타지는 젊음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기대를 가진 미지의 곳이다. 이 때문에 미지의 장소는 청년에게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와 설렘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익숙하지 않아 조금은 두렵기도, 불안감을 가지게 한다. 이로써 많은 이들은 타지로 떠나게 하고, 지역에 남아 있게 된다.

어느 곳에 가든 청년이 자리 잡기에 고단한 것은 마찬가지이며, 어느 것 하나 쉽고 어렵다고 쉬이 말할 순 없다. 그렇지만 지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제한되고 한정된 것들을 더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생경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 대신, 지역에서 살아가게 된 청년들은 주어진 한계를 깨부수기 위해 이곳에서 기회를 만들어 간다. 지역의 청년들은 그들이 이곳에서 기대하는 사회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치를 지역에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전과 달리 이곳이 조금은 새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 프롤로그 중

*Salon* de *Gyeonggsan*